

정치권 방어막·靑 사정 라인 붕괴... 무너지는 박근혜 정권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증인채택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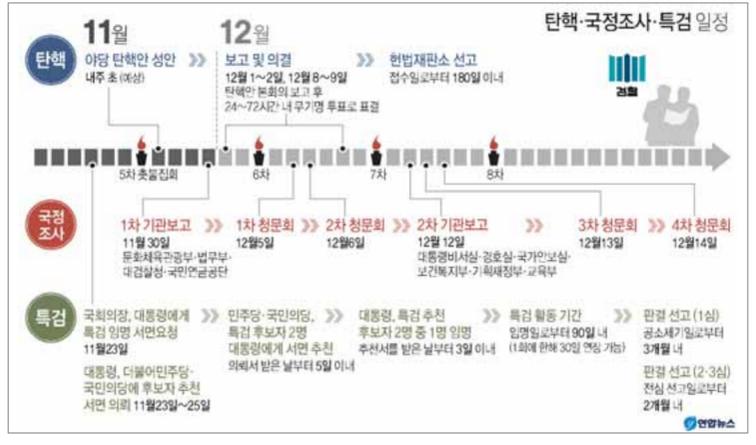
사면초가 몰린 박대통령
與 비주류 60여명 탄핵 찬성
국회의장, 특검 임명요청서 보내
국회 국조특위 24명 증인 확정

민심의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점차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검찰이 다시 대면조사를 요구하면서 압박에 나선데 이어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임하면서 사실상 사정라인이 붕괴됐다.

여기에 새누리당 비박(비 박근혜) 진영의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국회의 탄핵 의결은 조망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의 방어막도 무너지 내리는 분위기다.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도 증인 채택과 일정에 합의하면서 국정 농단의 민낯을 국민 앞에 밝히겠다는 태세다.

▷탄핵 초읽기=새누리당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전 대표가 박 대통령 탄핵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 조건인 의원 정족수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최소한 40명, 많게는 60명 정도가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 의석이 171석이라는 점에서 탄핵 의결 정족수 200명 확보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비박 진영이 박 대통령 탄핵에 나선에 따라 정치권의 방어선도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동시에 사표를 제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이 선 총리 임명 주장을 미루면서 야권의 공조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정조사 및 특검=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23일 운영 일정과 증인 명단을 의결했다. 이날 특위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 조카 장지호, 언니 최순득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등 총 24명의 증인을 확정했다. 오는 30일 1차 기관보고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이 보고에 나선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에 대한 기관보고는 당초 다음 달 12일

에서 5일로 앞당겨졌다. 5일로 예정됐던 8대 그룹 총수에 대한 1차 청문회는 6일로 조정됐으며 7일(2차 청문회), 14일(3차 청문회), 15일(4차 청문회)에 이어 16일(현장조사) 등이 실시된다. 2차 청문회에서는 최순실 등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를 청와대에 보냈다.

청와대는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의뢰하고, 두 야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다음 주에는 특검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추미에 “野 경쟁 안돼...국민추천 총리로 가야”

‘박근혜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광주전남 공동 출정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3일 국회 차원의 국무총리 추천 논란에 “야당끼리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뜻대로 국민추천 총리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광주전남 공동출정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도 새누리당표를 적당히 모았다고 해서 덜컥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엄밀하게 신속하게 해야 한다”면서 “서두르거나 재촉하거나 강박해서는 안 되고 이번만큼은 실수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길과 방법을 찾을 것이다”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이 어떻게 국익을 해쳤는지 낱알이 그의 잘못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 온 것을 의식한 듯 논란이 됐던 영수회담 취소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야당 정치력이 어디 갔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고 답판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며 “정치가 작동해야 하는 것이 순리고 상식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왜 야당대표 혼자 나섰냐고 하는데 협력할 땐 협력하고 답판 지을 때는 답판 지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총선 민의 아니겠냐”며 “야당끼리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쟁심리로 이 엄중한 시기를 놓쳐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러나야 할 대통령 앞에서 야당끼리 경쟁해선 안 되고 정치선행 하면서 교활한 수구에게 길을 터주는 헛발질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추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지역위원들의 관계자,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출정식 이후에는 인근 총장로서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거리 서명운동을 벌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향의 방문한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과 비대위원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3野 “김기춘 구속 수사해야” 파상 공세

우병우 조속 수사도 촉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에 착수한 야권이 23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파상 공세를 펼쳤다. 박 대통령의 버티기와 강경 대응에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 이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 전 실장은 최근 최순실씨와 연루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도 최씨의 국정농단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이날 일제히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실장을 “최순실에 이은 또 한 명의 박근혜 대통령의 선생님, 사부”라고 표현하며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관련자들의 증언을 보면 최순실씨를 알선해주는 김기춘씨가 직접 관여돼

있었다”면서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에 김기춘이라는 사람도 얽말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힘을 보탰다.

오래 전부터 김 전 실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국민의당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기춘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주승용 의원)’ 의원 3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를 면담하고 김 전 비서실장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인물인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관련 증언과 의혹으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으므로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그간의 행보는 김 전 실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이자 박근혜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는 주범”이라며 “검찰이 김 전 실장을 풀어놓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압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친구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학교를 만듭니다.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친구에게 먼저 말하세요.

친구야 사랑해!

- ‘친구야, 넌 최고야! 멋져!’
- ‘힘내! 넌 할 수 있어!’
- ‘너는 항상 좋은 친구야!’
- ‘너는 생일선물처럼 소중한 친구야!’
- ‘괜찮아, 잘 될거야 걱정마!’
- ‘너를 믿어!’
- ‘친구야, 사랑한다!’
- ‘친구야, 고마워!’
- ‘친구야, 같이 놀자!’
- ‘배려하며 함께하자!’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일보** **세상**